중학생의 따돌림 가해 실태 및 심리사회적 요인

아영아**·정원철*·차타순†

(**부산디지털대학교·*신라대학교·† 부경대학교)

Th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bulling and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bullying behavior

*Young-Ah, AH**· Weon-Cheol JEONG*· Ta-Soon CHA†*

***Puasn Digital University· *Silla University· † Pukyu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11, 2005 / Accepted November 30, 2005)

Abstract

Bullying behavior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have been increasing and being severe social problem. Therefore, on the basis of ecosystematic perspective, this study proposed the psychosocial factors that have various subsystems, such as individual level, family level, school level.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of bulling and to examin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bully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surveyed were those 354 students who indicated they experienced bully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49.2% of surveyed youth has the bullying offending experience. In detail, 26.7% of the bullies is estrangement from relations, 41.9% is verbal teasing, 18.2% is physical teasing. Secondly, the most important psychosocial factors to influence bullying behavior has been found the factors from the school. In the next place, from the individual. The prior factors that have relative influencing power on the bullying behavior are in order as follows- experience as victims of bullying and witness to bullying, aggression, peer group's exposure to delinquency, emotional unrest among sub-type borderline features, self-esteem, peer aggregation, a marital discord.

key words : *Bullying, the bullying behavior, Psychosocial factors.*

Ⅰ. 서 론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청소년 따돌림 현상은 그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다. '따돌림', '괴롭힘', '왕따', '학교폭력', '이지메', '히키코모리', '인터넷중독', '자살' 등의 용어는 청소년 따돌림문제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따돌림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며 그 결과 또한 한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949, tscha@pknu.ac.kr)

책과 태도는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따돌림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있어온 일이며, 따돌림을 성장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따돌림의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이며, 따돌림에 따른 영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따돌림 현상은 결코 가벼이 다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따돌림에 대한 피해와 그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면서 이미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히 중학생의 따돌림 현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중학생의 따돌림이 초·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청소년기가 갖는 인간발달 단계상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시기는 혼란된 자아상을 가지면서 친구에 대한 집착과 집단에의 소속욕구가 유난히 강하며, 집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대개의 청소년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힘들어한다. 따돌림은 이와 같은 또래집단의 형성과 해체에 따른 구성원의 이합집산과 재구성에서 비롯되는 갈등 및 대립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남미애, 2000).

지금까지 따돌림에 대한 연구 대상은 주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게 편중되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따돌리는 학생들도 따돌리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있으며, 안정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형성이 어려워 미래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야기되거나 개인적 성격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Galen & underwood, 1997)는 따돌림이라는 공격의 주체인 따돌림을 가하는 학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아동은 20명 중 한 명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따돌림이나 공격을 가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4명 중 한 명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Fried 등(1998)의 연구는 따돌림을 가하는 학생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따돌리는 행동을 '반사회적이고 규범 파괴적 행동양식'으로 본다면, 따돌리는 학생은 나중에 범죄나 알코올 남용과 같은 다른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예견해 볼 수 있으며, 따돌림에 관한 몇몇 연구는 실제로 이와 같은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Loeber & Dishion, 1993; Olweus,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 당한 학생 못지않게 따돌림을 가하는 학생 역시 체계적인 원조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따돌림을 가하는 학생의 실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이 따돌림 가해행위[15]를 하는 데는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해행위의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심리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개인특성요인, 가족특성요인, 학교요인으로 설정하였다.

1. 개인특성 요인

청소년의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적 특성은 공격성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하위요인인 정서불안정, 정체성문제, 대인관계불안, 그리고 자기존중감이다. 따돌림 관련 연구에서 공격성은 따돌림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은정, 2002). 따돌림을 규명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Olweus(1994)는 따돌리

1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따돌림 가해행위'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같은 집단 내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를 그가 속한 집단에서 소외시키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인 일체의 행위'로 정의한다.

는 학생[16]의 전형적인 심리특성으로 공격성에 주목하고 공격성의 부적절한 발산이 따돌림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Rigby(1996) 역시 따돌리는 학생의 주 특징으로 공격성과 충동성 그리고 협동심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은숙(2000)은 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이 따돌림 가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따돌리는 학생은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높은 공격성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박정은, 2002; 이명신, 2002).

정체감 혼란을 주 특징으로 하는 경계선 성격특성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드러낸다. 경계선 성격특성은 불안, 우울, 분노, 초조, 유기감, 정체성 결여를 주요특징으로 하는 인격장애의 한 형태인데, 경계선인격을 가진 개인은 유기되는데 대한 강한 무의식적인 불안이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낳는 요인이 된다. 임상적으로 볼 때 경계선 인격자들은 버려지거나 홀로 되는데 취약함을 보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예민함을 드러내기가 쉽다. 이러한 측면은 유기되지 않으려는 강한 시도를 보이는 경계선인격자들이 타인을 배척하거나 괴롭히면서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청소년의 따돌림 가해행위와 관련된 경계선 성격특성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과 경계선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행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인간관계가 매우 의존적이고,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고독과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며, 돌발적으로 적개심과 분노를 표현한다(임종렬, 1991). 계속해서 확장된 공격성은 승화되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거나 확고하지 못하여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비행청소년은 상황을 지각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하여 자기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관망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도 왜곡되어 있다(한국카운슬링연구소, 1992). 비행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특성은 대인관계의 불안정감이다. 그들의 대인관계는 극도의 자기이상화와 평가절하 가운데서 상대에 대한 따뜻한 인간적 배려가 없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면서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그리워하며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려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임종렬, 199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계선성격특성의 하위유형으로 간주되는 정서적 불안, 자기정체감, 대인관계불안의 변인은 따돌림의 가해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따돌림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따돌리는 학생들은 교사나 다른 권위체계와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따돌림 가해 행동의 결과로 인해 자존감의 저하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다(Rigby & Slee, 1994). 이에 반해 따돌림 가해 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따돌리는 학생들은 평균이상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Olweus, 1993)는 보고도 있다. Horne & Scocherman(1996)에 따르면 따돌리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있어 힘을 통해 즉, 공격적이 됨으로써 자기존재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따돌림 가해 행동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 가족특성 요인

가족은 개인의 심리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발달과업이나 생활주기는 가족구성원에게 적응과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상으로 볼 때 부모에게 의존하고

16) 기존의 연구에서는 따돌리는 행위자를 '가해자'로 명명하여 범죄자의 느낌을 주는 면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따돌리는 학생'으로 명명한다.

있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시기이므로 가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Zastrow, 2001).

따돌림 가해행위와 관련된 가족특성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모 불화의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따돌림 가해행위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를 Olweus (1993)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즉, 유아기에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개입이 없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다른 아이에게 심지어 어른에게까지 공격적으로 대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녀에게 육체적 처벌을 가하거나 격렬한 감정폭발을 보이는 등 부모가 힘을 강조하는 양육법을 사용할 경우 그 자녀는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Patterson(1986) 역시 부모-자녀간의 특정한 상호작용이 자녀의 공격성과 정서적 불안정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거나 권위적일 때 자녀가 공격적으로 되어 학교폭력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석진, 2000; 심선보, 2000; 박정은, 2002).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형과 권위형으로 분류하여 양쪽 유형이 따돌림 가해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한다.

학교폭력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다룬 연진영(1992)의 연구는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자녀는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보고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폭력이나 체벌은 자녀를 공격적인 성격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윤 진, 1996). 국내의 경우 따돌림 가해행위와 관련해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상술한 연구들에 기초해볼 때 따돌림 가해행위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불화는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으로 불안감이나 불안정을 유발하여 반사회적 습성을 익히게 할 뿐 아니라 학교 폭력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Eron, 1980). 부부간의 생활(부부관계)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갈등상태인 부모를 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보다 많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박소영, 1991). 부모간의 불화로 인한 폭언이나 폭력을 많이 목격한 청소년일수록 폭력을 당연시하고 문제해결에 폭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주장은 관찰과 모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Bandura (1973)의 고전적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따돌림가해행위는 가족 내의 부부관계와 가족 내의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가족역기능과 상당부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학교특성 변인

따돌림 가해행위가 학교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변인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돌림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학교특성 변인은 또래집단화, 친구들의 비행정도, 따돌림에의 노출정도, 교사의 따돌림에 대한 태도, 교사와의 관계이다.

학교생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위문화이론과 사회학습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나 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를 학습함으로써 조직에 사회화된다. 청소년기는 신념이나 태도, 가치관이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는 집단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또래집단은 점점 안정되고 배타적이며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를 집단 활동에서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이 시기의 또래집단은 개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에게 하나의 규범과 압력으로 작용한다. 즉, 집단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 자아의 인식을 강화시키며, 따라서 집단의 의견과 또래압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집단압력에 의한 동조현상은 따돌림의 집단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일탈행동을 친구로부터의 학습된 결과로 이해한다. 따라서 개인이 속한 또래집단이 비행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 및 또래집단의 행동을 예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2)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친구와 많이 접촉할수록 비행 및 폭력가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또래집단은 같이 소속된 개개인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므로 폭력이나 비행에 자주 노출되는 또래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일탈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이은정, 2002). Williams & Jenkins (1998)는 흑인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요소로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를 지적하고 있다.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경험과 그러한 폭력행위를 목격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폭력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의 일부 연구(이상균, 1998; 최은숙, 2000)에서도 따돌림 피해경험과 따돌림 가해행위는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은 폭력의 학습, 폭력에 대한 보상과 제재를 주개념으로 하여 폭력의 발생과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지메'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이지메 문제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할 때, 이지메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김명식, 1999). 2020명을 대상으로 한 Roland & Galloway(2002)의 연구 역시 따돌리는 행위가 교사의 학급운영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해 볼 때 교사의 따돌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따돌림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와는 달리 이은정(2002)의 연구는 교사의 태도와 따돌림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따돌림과 교사의 태도 간에는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따돌림가해행위의 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따돌림가해행위에 대한 심리사회적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1개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방송반 담당교사와 함께 방송으로 설문지의 목적과 작성방법을 설명한 뒤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은 총 783부로 이 가운데 설문내용이 불성실한 64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차 분석대상인 전체 719부의 설문은 전반적인 따돌림 가해행위 실태에 사용되었으며, 따돌린 경험이 있는 354부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2. 측정도구

가. 따돌림 가해행위 측정

중학생의 따돌림 가해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은정(2002)이 사용한 따돌림 가해행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문항의 5점 척도로서 따돌림 가해유형을 언어형, 소외형, 물리형으로 하였다. 따돌림 행위는 지난 한 학기의 경험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5이다.

나. 개인특성 변인 측정

경계선성격 측정은 세 가지 영역 즉, 정서적 불안정과 정체성, 대인불안으로 Morey(1991)의 경계선인격특성 척도를 남영옥(2001)이 유형화한 것

을 사용했다. 이 3개 척도는 15개 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신뢰도 계수는 .86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공격성의 측정은 연진영(1992)의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5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69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5개 문항을 선정하여 4점 척도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신뢰도 계수는 .67이다.

다. 가족특성 변인 측정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에는 이시형(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민주적 양육태도의 5개 문항과 권위적 양육태도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3점 척도로 평정되며,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태도의 정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민주적 양육태도에 .74, 권위적 양육태도에서 .7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Barnes(1982)가 제작한 PACI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개방적, 문제적 의사소통 각각 5점 척도의 4개 문항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해당유형의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 계수는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가 .80, 문제적 의사소통이 .71이다. 부모의 불화 척도는 박선미(2003)가 사용한 부부상호작용 척도에서 4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화가 많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라. 학교특성 변인 측정

또래집단화의 척도는 이은정(2002)이 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는 6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신뢰도 계수는 .67이었다. 친구들의 비행정도는 이상균(1998)의 척도 중에서 4점 척도 6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비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88이다. 교사의 따돌림에 대한 태도는 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은정(2002)이 개발한 7개 문항 중 4점 척도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따돌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83이다. 교사와의 관계 척도는 강지영(2002)이 사용한 6개 문항 중 이은정(2002)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4점 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계수는 .86이다. 따돌림의 목격과 피해경험은 이은정(2002)이 사용한 따돌림 가해행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문항의 5점 척도로서 따돌림을 목격하거나 당한 경험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는 각각 .77과 .79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따돌림 가해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따돌림 가해정도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서 t-검증을, 주요변수들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이 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조사대상자 중 따돌리는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1학년이 172명(48.6%), 2학년이 99명(28.0%), 3학년이 83명(23.4%)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따돌림 가해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가 233명(65.8%), 여자가 121명(34.2%)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따돌림 가해행위를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에 있어서는 본

<표 1> 조사대상자중 따돌리는 학생의 주요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n=354)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72(48.6) 99(28.0) 83(23.4)	성별	남 여	233(65.8) 121(34.2)
형제수	한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상	32(9.0) 248(70.1) 50(14.1) 24(6.8)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없다	12(3.4) 72(20.3) 129(36.4) 133(37.6)
월수입 (만원)	100미만 100이상-200이하 200이상-300미만 300이상	27(7.6) 97(27.4) 126(35.6) 91(25.7)	성적	1등-10등 10등-20등 20등-30등 30등 이하	106(29.9) 109(30.8) 80(22.6) 58(16.8)
부학력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229(64.7) 95(26.8) 15(4.2)	모학력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266(75.1) 61(17.2) 9(2.5)

인 한 명인 경우는 32명(9.0%)이 따돌림 가해행위를 경험하였으며, 형제 수가 두 명인 경우는 248명(70.1%), 세 명인 경우는 50명(14.1%), 네 명 이상인 경우는 24명(7.6%)이 따돌림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따돌림 가해행위가 213명(62.4%)으로 나타나 종교가 없는 학생133명(37.6%)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월수입에 있어서는 100만원미만이 27명(7.6%),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이 97명(27.4%),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126명(35.6%), 300만원이상이 91명(4.2%)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있어서는 1등에서 20등까지가 215명(60.7%), 그 이하 등수가 138명(39.4%)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따돌림 가해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따돌림 가해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따돌림 가해행위의 유형별 실태

따돌림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따돌림가해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따돌림 가해행위 중에서 소외형은 전체 719명 중 26.7%(192명)의 학생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형은 전체의 41.9%(301명)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가지 유형 중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사회가 언어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타인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욕설을 아무 죄의식 없이 생활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문선화, 2002). 또한 물리형도 전체의 18.2%(1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따돌림가해의 내용 역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한 학기에 1-2번 정도의 따돌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주일에 한번 이상 따돌린 경험도 각 행동항목에 따라 많게는 10%이상에 이르고 있어 따돌림의 행위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이은정(200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3. 따돌리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가해행위 차이

<표 3>은 따돌리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따돌림 가해행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

<표 2> 따돌림 가해행위의 유형별 실태 (n=354)

유형		한학기 1-2번	한달에 1번이하	한달에 2-3번	일주일 1번이상	계(%)
소외형 (관계에서의 소외)	• 인사나 묻는 말에 고의적으로 무시하기	58 (8.0)	26 (3.6)	21 (2.9)	21 (2.9)	126 (17.4)
	•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때 고의적으로 끼워주지 않기	33 (4.5)	12 (1.7)	8 (1.1)	11 (1.5)	64 (8.8)
	• 조 활동 등 같이해야 할 일에 고의로 끼워주지 않기	27 (3.7)	11 (1.5)	1 (0.1)	6 (0.8)	45 (6.2)
	• 나쁜 소문을 퍼뜨려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도록 하기	42 (5.8)	9 (1.2)	5 (0.7)	7 (1.0)	63 (8.0)
소외형가해행위 합계(%)		192(26.7)				
언어형 (언어적 괴롭힘)	• 욕하거나 심하게 놀리기	74 (10.2)	44 (6.1)	36 (5.0)	75 (10.3)	230 (31.7)
	• 무서운 말로 위협하기	32 (4.4)	10 (1.4)	11 (1.7)	12 (1.7)	65 (9.0)
	•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담하기	63 (8.7)	43 (5.9)	29 (4.0)	46 (6.3)	181 (24.6)
언어형가해행위 합계(%)		301(41.9)				
물리형 (물리적 괴롭힘)	• 때리거나 발로차기	52 (7.2)	21 (2.9)	14 (1.9)	21 (2.9)	108 (14.9)
	• 고의로 물건을 망가뜨리기	37 (5.1)	8 (1.1)	1 (0.1)	5 (0.7)	51 (7.0)
	• 돈이나 물건 빼앗기	12 (1.7)	3 (0.4)	2 (.03)	4 (0.6)	21 (2.9)
신체형 가해행위 합계(%)		136(18.2)				

과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전체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즉 소외형에서는 여학생들이, 언어형과 물리형에서는 남학생들이 높게 나타나 김석진(2000), 이은정(2002)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종교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아 청소년 시기의 종교는 아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소외형(F=2.941, P<.05)과 언어형(F=5.13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소외를 많이 시키며, 언어형은 전체학년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2학년이 특히 높았다. 사후검증(scheffe′-test)을 실시한 결과, 소외형에서는 3학년이, 언어형에서는 2학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 변인에서는 언어형에서 유의한 차이(F=3.668, P<.05)를 보였으며, 사후검증(scheffe′-test) 결과 월수입 '하' 집단이 언어형 따돌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물리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407, p<.05; F=3.927, p<.05). 사후검증(scheffe′-test)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따돌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상관관계

앞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과 모형의 설명력을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확

<표 3> 따돌리는 학생의 개별적 속성에 따른 따돌림 가해행위 차이 (n=354)

구분		소외형		언어형		물리형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1.48	2.47	3.56	2.64	1.18	1.89
	여자	1.80	1.91	2.43	2.48	.49	1.42
t		-1.331		**3.951*** **		**3.492** **	
종교	있다	1.72	2.37	3.16	2.77	.97	1.86
	없다	1.36	2.15	3.19	2.41	.90	1.62
t		1.464		-.100		.374	
학년	1학년	1.30	1.89	3.13	2.65	.98	1.55
	2학년	1.73	2.91	3.75	2.71	.84	1.77
	3학년	2.01	2.20	2.56	2.40	.98	2.17
F		**2.926***		**4.727** **		.208	
월수입	상	1.84	2.92	3.31	2.69	1.00	2.03
	중	1.38	1.99	2.72	2.36	.80	1.37
	하	1.64	2.11	3.60	2.80	1.09	1.98
F		1.097		**3.668***		1.819	

구분		소외형		언어형		물리형	
		M	SD	M	SD	M	SD
성적	상	1.62	2.56	3.15	2.69	1.04	2.12
	중	1.48	2.12	2.97	2.34	.69	1.38
	하	1.65	2.22	3.35	2.82	1.06	1.74
F		.167		.663		1.556	
부학력	중졸 이하	1.63	2.14	3.29	2.64	.88	1.57
	고졸	1.52	2.31	2.85	2.40	.70	1.50
	대졸 이상	1.56	3.34	2.83	2.78	1.73	2.57
F		.075		1.212		**4.407***	
모학력	중졸 이하	1.66	2.21	3.20	2.62	.90	1.60
	고졸	1.44	2.26	3.13	2.57	.62	1.48
	대졸 이상	1.37	3.21	2.48	2.67	1.70	2.53
F		.382		.928		**3.927***	

*p<.05 **p<.01 ***p<.001 성별(0=여자), 학년(1=일학년), 월수입(1=하, 2=중, 3=상)

<표 4>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354)

	성별	학년	월수입	공격성	자존감	정서불안	정체감	대인불안	민주양육	권위양육
학년	.039									
월수입	.114**	-.045								
공격성	.021	.042	.043							
자존감	.096*	.066	.099**	.020						
정서불안	-.091*	.126**	.011	.376**	.037					
정체감	-.171**	.131**	-.029	.317**	.025	.570**				
대인불안	-.138**	.063	.018	.302**	.054	.604**	.580**			
민주양육	-.032	-.060	.030	-.078*	.188**	-.013	-.012	-.018		
권위양육	-.006	.119	.000	.178**	.012	.234**	.200**	.151**	.361**	
개방의사	.014	-.106	.048	-.137**	.215**	-.145	-.145**	-.126**	.638**	.094*

	성별	학년	월수입	공격성	자존감	정서불안	정체감	대인불안	민주양육	권위양육
문제의사	-.085*	.095**	-.027	.231**	-.007	.373**	-.371**	.330**	-.002	.395**
부모불화	-.125**	.057	-.157**	.155**	-.105**	.251**	-.200**	.196**	-.312**	.058
집단화	-.129**	.178**	.027	.185**	.173**	.174**	.147**	.168**	.310**	.408**
비행친구	.182**	.094*	.023	.318**	.057	.219**	.108**	.151**	.151**	.394**
교사관계	.029	.085*	-.008	-.079*	.203**	.004	-.005	-.014	.388**	.267**
교사태도	-.047	-.122**	.006	.018	.073**	.082*	.080*	.074*	.362**	.276**
피해경험	.137**	-.133**	.016	.229**	-.008	.187**	.175**	.239**	-.095*	.038
목격경험	.020	-.007	.041	.176**	.138**	.162**	.156**	.200**	.042	.115**
가해경험	.085*	-.080*	.021	.319**	.123**	.249**	-.155**	.209**	-.033	.080**

	개방의사	문제의사	부모불화	집단화	비행친구	교사관계	교사태도	피해경험	목격경험
문제의사	-.146**								
부모불화	-.455**	.305**							
집단화	.175**	.273**	.029						
비행친구	-.003	.290**	.142**	.270**					
교사관계	.306**	.056	-.148**	.205**	-.137**				
교사태도	.250**	.139**	-.108**	.271**	.082*	.492**			
피해경험	-.153**	.129**	.138**	.021	.230**	-.043	.025		
목격경험	-.016	.081*	.085*	.078*	.148**	.068	.056	.299**	
가해경험	-.099**	.119**	.149**	.151**	.252**	.001	.079*	.410**	.329**

*p<.05 **p<.01 성별(0=여자), 학년(1=일학년), 월수입(1=하, 2=중, 3=상)

인한 결과 부모자녀간 개방적의사소통과 민주적 양육태도간에 .638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의 최고값은 2.265, 공차한계값(tolerance)은 .950으로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다수의 변인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당수의 독립변수들이 따돌림 가해경험과 정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자보다 남자가,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정서불안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많을수록, 권위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문제적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부모불화가 심할수록, 또래집단화 경향이 심할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따돌림피해경험과 목격경험이 많을수록 따돌림 가해경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학년과 정체감, 개방적 의사소통, 민주적 양육의 변인 등은 부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적을수록, 개방적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민주적양육태도가 낮을수록 따돌림 가해행위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분석

심리사회적 요인이 따돌림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에서 따돌림 가해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인구사회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델1은 사

<표 5>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n=354)

따돌림 가해행위									
투입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	β	t	β	t	β	t
통제변수	성별	.129	3.474**	.125	3.553***	.126	3.571***	.012	.368
	학년	-.038	-1.022	-.084	-2.391*	-.086	-2.433*	-.032	-.959
	월수입	-.007	-.189	-.056	-1.613	-.043	-1.234	-.063	-2.039*
개인특성요인	공격성			.292	7.833***	.278	7.299***	.156	4.460***
	자존감			.123	3.548***	.148	4.125***	.089	2.706**
	정서불안			.148	3.090**	.152	3.123**	.139	3.246**
	정체성			-.081	-1.594	-.084	-1.625	-.071	-1.572
	대인불안			.056	1.158	.051	1.041	-.059	-1.373
가족특성요인	민주양육					-.040	-.875	-.061	-1.516
	권위양육					.003	.085	-.025	-.760
	개방의사					-.047	-.978	-.012	-.280
	문제의사					.041	.984	.074	2.007
	부모불화					-.071	-1.858*	-.039	-1.148*
학교특성요인	또래집단화							.067	1.964*
	친구비행							.131	3.797***
	교사관계							-.007	-.193
	교사태도							.062	1.741
	목격경험							.326	9.083***
	피해경험							.183	5.122***
R^2		.012		.156		.168		.369	
R^2변화량				.144		.012		.201	
F		**3.038***		**16.583*****		**11.021*****		**21.569*****	

*p<.05 **p<.01 ***p<.001 성별(0=여자), 학년(1=일학년), 월수입(1=하, 2=중, 3=상)

회인구학적 통제요인이 투입된 단계이다. 종속변수인 따돌림가해행위에 대한 모델1의 설명력은 2.6%이며, 이 모델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F=3.038, P<.05). 모델1에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추가된 모델2의 설명력은 15.6%로 이전 보다 설명력이 14.4%가 증가하여 회귀모델에서 유의미하였다(F=16.583, p<.001). 심리적 요인 중에서 공격성과 자존감, 정서불안의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정서불안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따돌림 가해행위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특성요인이 투입되자 학년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따돌림 관련 프로그램이 보다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의 순서는 공격성, 정서적 불안, 자존감 순이다.

모델2에 부모관련 변수가 추가된 모델3에서는 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16.8%로 이전 단계에 비해 1.2%증가 하여 회귀모델은 유의미(F=11.021,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요인의 개별변수들 중 영향력 있는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는 부모불화변인 뿐이었다. 즉 부모불화가 심할수록 따돌림 가해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심선보, 2000; 박정은, 2002)들이 따돌림 가해행위가 가족적인 요인과 관련이 많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따돌림의 원인으로 가족적 요인만을 한정하여 연구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가족요인이 투입되자 공격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따돌리는 학생들의 공격성 개입에 가족의 역할 역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델3에 학교요인의 변수가 투입된 모델4는 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36.9%로 이전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20.1%나 증가하여 학교요인이 따돌림가해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나타냈다(F=21.569, p<.001).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는 또래집단화와 비행친구, 따돌림의 피해경험과 목격경험이었다. 이는 또래집단화가 강할수록, 친구비행이 많을수록, 따돌림에의 노출정도가 심할수록 따돌림 가해행위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피해경험과 목격경험은 따돌림을 설명하는데 매우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따돌림이 상당부분 또래로부터 학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따돌림 피해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따돌림 가해행위가 따돌림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어서 따돌림의 예방과 치료는 범학교차원의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김명식, 1999; Roland et al., 2002)와는 달리 교사의 태도나 교사와의 관계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의식한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보여 진다.

전반적으로 학교요인이 투입되자 개인적요인과 가족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학교요인이 특히 부각된 점은 이 시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따돌림 가해행위에 대한 개입이 학교를 중심 장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는 따돌림 목격경험, 따돌림 피해경험, 공격성, 친구비행, 정서불안, 자존감, 또래집단화, 부모불화요인으로 밝혀졌다.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따돌림 가해 행위 유형별 실태와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따돌림 실태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719명 가운데 49.2%에 해당하는 354명이 따돌림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춘재 외, 1999)에서 따돌림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정도까지 이르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따돌림가해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학교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성적, 종교 등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성별이나 학년, 월수입 그리고 부모학력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셋째,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학년은 심리적 요인이 투입되면서 상대적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가족요인이 투입되자 심리적요인 중 공격성 요인의 영향력이 다소 낮아졌으나 최종모델까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남아있었다. 학교요인은 따돌림 가해정도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하위변수 중 영향력 있는 변수로는 따돌림 피해경험과 목격경험 그리고 또래집단화와 비행친구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최종모델에서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는 따돌림 목격경험, 따돌림 피해경험, 공격성, 친구비행, 정서불안, 자존감, 또래집단화, 부모불화요인으로 밝혀져 따돌림 가해행위 개입에 학교를 중심으로 가족, 개인 등 다차원적인 체계에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 연구는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요인(최은숙, 2000; 심선보, 2000; 김석경 2002)을 들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 요인이 다른 요인들 속에 있을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요인이 따돌림 가해행위를 설명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처럼 따돌림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접근할 경우, 가족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따돌림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교생활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입방안과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과 정서불안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개입이다. 따돌림가해학생에게 나타나는 정서불안과 공격성 사이의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따돌림을 예방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따돌리는 학생들의 자존감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따돌리는 학생에게 교정적, 정서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입과 함께 올바른 자존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우관계에 대한 개입이다. 또래집단화와 친구비행정도가 따돌림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할 때, 따돌리는 학생의 친구집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친구집단에 대한 접근에는 따돌리는 학생이 접촉하는 친구집단의 영향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즉, 힘과 지배가 관용과 배려보다 더 우월하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후자의 방법은 학교의 환경을 바꿈으로서 이러한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저지르기보다 다른 재미있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며, 교내에 적절한 감독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따돌림가해와 피해의 악순환을

막고자 따돌린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순화,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강한 친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원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성장과 교육의 장인 학교가 더 이상 따돌림의 장이 될 수 없도록 민간, 학교 및 지역사회 전체가 따돌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따돌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강지영, 집단따돌림피해학생 판별도구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명식, 일본학교의 이지메 대응방안, 월간 새교육 7,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1999.

김석경, 청소년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극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석진,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1호, pp.136~137, 2000.

남미애, 「청소년 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0.

남영옥,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경계선 성격특성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45호, pp.69~70, 2001.

남영옥,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행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0호, pp.173~207, 2002.

문선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문제와 원인, 사회복지연구, 제1권, pp.6~12, 2002.

박선미, 청소년을 위한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소영, 어머니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박정은,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심선보,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윤 진, 음란출판물 접촉과 청소년의 성관련태도 및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2호, pp.79~90, 1996.

이명신,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1호, pp.29~61, 2002.

이상균,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관계망 분석, 사회복지리뷰 제8권, pp.357~379, 1998.

이상균,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이시형, 학교폭력실태와 그 예방, 대한의사협회지. 40, 1997.

이은정,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춘재·곽금주,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특성 및 실태」, 서울: 집문당, 1999.

임종렬, 「치료심리학-경계선증후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연구소, 199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사회의 폭력 실태, 학교폭력예방지침서, 2002.

최은숙,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카운셀링연구소,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서울: 성원사,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7.

Bandura, 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1973.

Barnes, H. L. & Olson, D. 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Eron, L. D., Huesman, R. L., Dubow, E., Romanoff, R., & Yarmel, P. W., "Aggression and its Correlates over 22 years", In D. Cromwell, I. M. Evans, & C. R. O′ Donnell(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NY: Plenum, 1980.

Fried, S. & Fried, P., “Bullies and Victims: Helping Your Child Survive the Schoolyard Battlefield”, New York: M. Evans and Company, Inc., 1998.

Galen, B. R. & Underwood, M. K.,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pp.589~600, 1997.

Horne, A. M., & Scocherman, R., "Profile of a Bully: Who would do such a thing?", Educational Horizons, 74, pp.77~83, 1996.

Loeber, M. R. & Dishion, T. J.,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 Setting Consist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st, 54, 755-764, 1993.

Masterson, J, The treatment of borderline adolescent, NY: Basic Book, 1972.

Morey, L, C.,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1.

Olweus, D.,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1993.

Olweus, D.,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pp.1171 ~1190, 1994.

Patterson, G. A.,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1986.

Rigby, K.,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Melbourne, VI: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1996.

Rigby, K., Slee, P. T.,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al among austr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pp.33~42, 1993.

Roland, E. & Galloway, D., "Classroom influences on bullying", Educational Research, 44, 2002.

Rosenberg, F. R. & M. Rosenberg,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173-177, 1979.

Surtherland, E, H., & Cressey, D. R., Criminology, (9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1974.

Williams D. A. & Jenkins J. D., Anger, assertiveness and the type-a behavior patter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1998.

Zastrow, C.,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5th ed.) Wadsworth Publishing CO, 2001.